# Arts Friend

2025 9
Vol.287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 Contents

## Events


문학이 잇는 클래식 '햄릿' 04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47회 정기연주회 05

울산시립합창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06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영화속 클래식 07

어린왕자와 비밀의 돌 47

## Exhibitions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기념전 08
이성경 작가 인터뷰

## Arts & Story


'반구천의 암각화'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나다 14

서예이야기 22
한문서예(漢文書藝)의 변천사
중국(中國)의 서예사(書藝史)

조희창의 테마클래식 26
즉흥곡, 바가텔 & 악흥의 순간 -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

오나경의 이지아트 컬렉션45 29
컨템퍼러리아티스트의 작품세계 23


## Information


공연가이드 40

전시가이드 41

공연일정 42

전시일정 44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46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25년 9월호 통권 287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달동)
발행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마동철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기획·편집 경영관리팀 T.052) 226-8212
디자인 ·제작 디자인엔터

울산광역시, 뜨겁게!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 윌리엄 셰익스피어
# William Shakespeare
# 햄릿

지휘 **박윤환**
진행 **정아름** | 샌드아트 **임주은**

# HAMLET

**쇼스타코비치** | 「햄릿」 영화음악 작품116a 중 **차이콥스키** | 「햄릿」 작품67a

**울산시립교향악단**
## 샌드아트로 즐기는 문학이 있는 클래식 제3막

2025. **9. 26.**(금)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전석 1만원**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조기예매 할인** 2. 12.~ 8. 26.(유료회원 40%, 무료회원 20%)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교향악단 | upo_blue
울산시립예술단

주최_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공연 상세보기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47회 정기연주회**

# 승리와 초월

지휘 **사샤 괴첼** *Conductor* Sascha Goetzel

소프라노 **박혜상** *Soprano* Hera Hyesang Park

울산광역시, 뜨겁게!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R. Strauss

G. Mahler

# TRIUMPH & TRANSCENDENCE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돈 후안
**R. Strauss** | Don Juan, Op. 2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네 개의 마지막 노래
**R. Strauss** | Vier letzte Lieder (Four Last Songs)

**구스타프 말러** | 교향곡 제1번 「거인」
**G. Mahler** | Symphony No. 1 in D Major 「Titan」

2025. **10. 31.**(금) 오후 **7:3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교향악단 | upo_blue 사샤괴첼 | saschagoetzel '울산시립예술단'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 주최_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립예술단

# 합창종합선물세트

A precious gift: choral music

울산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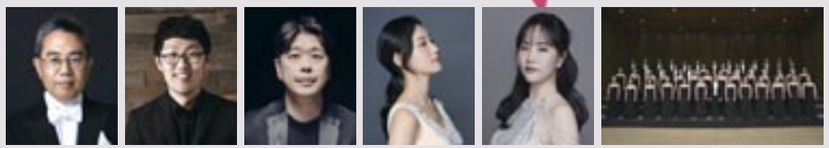
Classic Contemporary Baroque

Renaissance Romantic

2025. 9.18.(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31회 정기연주회



지휘 **박동희** 예술감독 | 해설 **김성민** | 카운터테너 **정민호** | 피아노 **강혜진** | 피아노 **정고은** | **울산시립합창단**

티켓 1층 1만원, 2층 5천원 할인 회관회원 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 및 청소년 50% 문의 052-275-9623 http://ucac.ulsan.go.kr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 ULSAN YOUTH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 **금길동** 협연 | 플루트 **김효경**

특별출연 | 테너 **배해신,** 알토 **현지은** 진행 | **정윤지**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기획공연

# 영화 속 클래식

C L A S S I C I N A M O V I E

2025. **9. 20.**(토) 오후 **5:0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가격_ **전석 1천원**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5세 이상 입장이 가능한 공연입니다.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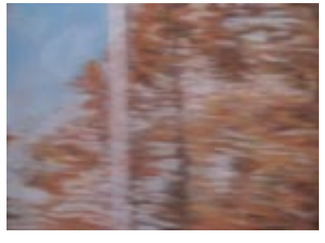
울산은 2021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미술상이 없는 지자체였다. 각 지역의 공·사립 미술관이 주관하는 미술상을 비롯해 문화재단, 기념사업회, 지자체, 신문사, 기업 등 미술상은 30여 개에 이른다. 경기도 양주군,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미술상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울산도 2022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인 삼두종합기술이 삼두미술상을 제정해 미술상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전시회가 9월3일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전시회 출품 작가인 이성경 작가와 그의 작품 소개, 또 삼두미술상에 대해 알아본다.

**차형석** 경상일보 사회문화부 부장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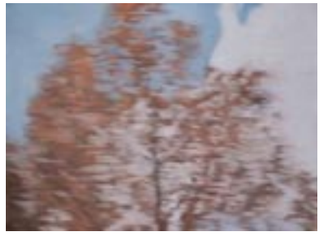
포개진-풍경-24-4_
한지에-채색,-목탄_120x82cm_2024

또-다른-그림자-22-5_
장지에-채색,-목탄_130x89

또 다른 그림자22-1,
장지에 과슈, 목탄, 165 x 130 cm,2022



바람-그림자-25-1_
크라프트지에-목탄_79x109cm_2025



바람-그림자-25-2_
크라프트지에-목탄_79x109cm_2025

또 다른 그림자 23-1,
장지에 과슈, 목탄,190 x 280 cm, 2023



## ◇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기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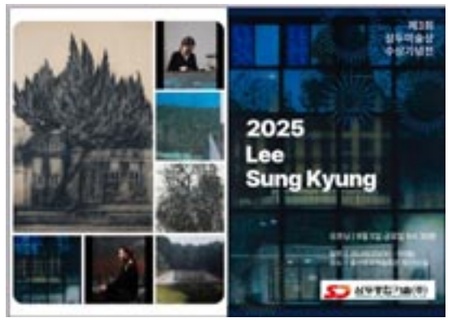
‘울산지역 중소기업인 삼두종합기술이 제정한 삼두미술상의 세 번째 전시회인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기념전’이 9월3일부터 15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오프닝 리셉션은 9월5일 오후 5시30분. 전시회 주인공은 2024년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이성경 작가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성경 작가는 한국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대구 출신 이성경 작가는 역대 삼두미술상 수상자 중 울산 출신이 아니거나 울산과 연고가 없는 첫 수상 사례로, 이번 전시도 울산에서 처음 갖는 전시다.

이성경 작가는 한국화 분야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잇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로 꼽힌다. 이 작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한지와 목탄이라는 재료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감정과 존재론적 풍경을 탐구해왔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서 ‘비움과 채움’의 동양적 미학,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정서적 진폭, 그리고 시간의 침묵을 머금은 사색적 풍경을 담아낸다.

과거의 작업에서는 인물의 실루엣과 상징적 형상을 중심으로 상처, 고통, 회복의 서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최근작에서는 그 감정의 궤적이 풍경과 기운생동의 추상적 장면으로 옮겨가며 관람자에게 더 큰 상상력을 열어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구 CNK갤러리 ‘흐름선(曇線)’ 전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발표된 중요한 개인전으로, 과거의 명확한 윤곽선이 점차 흐림과 여백의 미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작품 속 흐릿한 경계와 여운은 단절이 아닌 연결, 침묵이 아닌 회화적 언어로 기능하며, 감정과 기억의 잔상을 환기한다.

이성경 작가의 작업은 시각적 조형 언어 이전에, 감성적 공명과 정신적 밀도로서 다가온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인 한지와 목탄은 무겁고 고요한 감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숨결을 품고 있어, 일상의 순간에서 피어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들을 더욱 섬세하게 건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지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웅크린 말을 꺼내는 시적 드로잉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다가올 미래의 작업은 더욱 깊은 내면으로의 침잠과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나 공동체적 감정에 대한 확장된 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생태, 인간관계, 여성의 내면성과 같은 주제들이 작가의 조형 언어 안에서 더 넓은 상징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경




작가의 한국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는 탈피와 확장, 그리고 시적 재구성을 통해 앞으로의 동시대 회화 흐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통적 재료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의 회화’를 구현하는 동시대 한국화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한지와 목탄이라는 전통 재료에 대한 높은 이해와 장인정신, 둘째, 동양화의 조형 언어를 현대적 감정의 층위로 변환시키는 독자성, 셋째, 정서적 공감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 관람자와의 교감을 유도하는 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작가의 작업은 정제된 감정 표현과 조형의 절제미를 지녔고, 한지 위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의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작가의 예술세계가 단지 개인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인간 존재의 조건을 사유하게 만드는 철학적 울림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수상기념전은 이성경 작가의 예술 여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그녀의 작업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응어리진 감정과 기억들을 조용히 위로하는 ‘시각적 시(詩)’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경 작가는 영남대학교 디자인 미술대학 한국회화과와 동 대학원 한국회화과 석사를 졸업했다. 대구와 서울, 청주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1 제5회 광주화루 공모전 대상, 2019 호반문화재단 H-EAA 청년 작가 미술 공모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이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을 비롯해 정부미술은행, 대구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호반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서울특별시청, 항저우 TV(중국), 중국미술국립과학기술원(중국), 한국감정원 사옥 등에 소장돼 있다.

◇이성경 작가 인터뷰

**삼두미술상 수상자로 울산에서 전시회를 갖게 되었는데, 소감을 말해 주세요.**
"울산에서 전시를 갖는 것은 처음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제 작업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설레고, 관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호흡하고 반응할지 기대됩니다."

**지난해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기대나 예상을 했었나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작가로서, 제 작업이 삼두미술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어떻게 맞닿을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선과 주제 의식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두미술상에 왜 선정되었다고 보시나요. 또 삼두미술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가요?**
"공모 형식이 아니었기에 후보에 오르기 전에는 삼두미술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드리면서 알게 되었고, 선정 이유는 앞으로의 작업 활동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하게 되었나요. 그림에 대해 소질이 있었는지요. 또 여러 장르 중 한국화를 하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드라마틱한 계기는 없지만, 초등학교 시절 미술부 활동이 미대 진학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휴학을 거듭하며 학부를 10년 만에 졸업했고, '10년만 해보자'고 마음먹었던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와 목탄, 안료가 만들어내는 깊이와 물성,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제 주제와 잘 맞아 한국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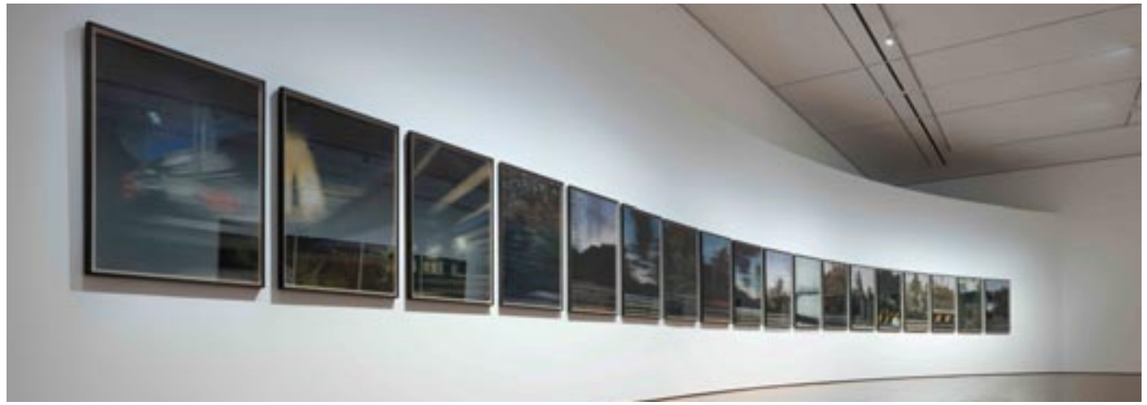
**작가님 작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지와 먹, 목탄, 안료 등을 주로 활용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작업은 '경계'와 '그림자'의 흐림을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림자는 종종 공포, 억압, 트라우마 등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제게는 많은 정보를 품고 상상과 가능성을 여는 하나의 수렴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정말 부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은 항상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빛과 그림자, 그 사이의 경계로 관심이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계는 대립하는 두 대상 사이에서 불분명하게 흐르는 선이며, 두 가지가 서로의 의미를 규정하는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난시안의 시각 경험을 작업 안으로 끌어들이고, 선을 미세하게 흔들며 한지 위에 채색과 목탄 레이어를 쌓아갑니다. 목탄은 지우고 문지를 수 있어 촉각적 표현에 유리하고, 한지는 스밈과 흔적을 남기는 특성이 있어 불명확함, 시간성, 심리적 공간을 드러내기에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총 작품수가 몇 점 가량 되는가요.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요. 또 가장 대작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요?**
"세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0점이상 될 것 같습니다. 애착작은 초기작인 「works」로, 현재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그림자'와 '경계'에 대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가장 큰 대작은 세로 392cm, 가로 590cm의 「그림자가 되었을 때 1-5」입니다."

**직업 화가로서의 가장 보람스웠을때는 언제였나요. 또 반대로 그만두고 싶었을때가 있었다면요.**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제 작업을 본 분이 위로받았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며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이번 수상이 제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 왔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창작과 생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꾸준히 창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늘어나는 작품량으로 작업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도 큰 고충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대구와 울산을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또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대구와 울산을 비교하기보다는, 서울·수도권에 문화가 과밀된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작가들이 머물며 실험할 수 있는 공간, 활발한 교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가가 지역 안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가로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경계'와 '그림자'라는 주제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고정된 듯 보이는 것들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바람 그림자 22-1~5, 23~13, 크라프트지에 목탄, 109 x 79 cm x 3p,2022

### ◇삼두종합기술이 제정한 삼두미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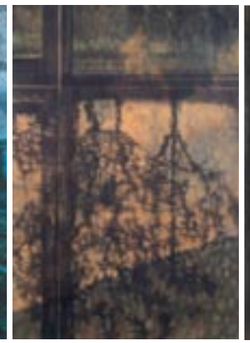
삼두미술상은 울산지역 중소기업인 삼두종합기술(대표이사 최영수)이 울산을 비롯한 국내 우수한 예술가들을 발굴 및 지원해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2년 제정해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다. 최영수 삼두종합기술 대표가 미술상 운영을 위해 사재를 털어 3000만원을 기탁했다.
삼두미술상이 제정되기 전 까지 울산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미술상이 없는 지자체였다.
최영수 삼두종합기술(주) 대표는 “울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삼두미술상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라고 미술상 제정 배경을 밝혔다.
2022년 12월 제1회 삼두미술상 수상자로는 울산 출신의 이강욱(홍익대 교수) 작가가 선정됐다.
이 작가는 초·중·고등학교를 울산에서 졸업했고, 홍익대 회화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26세 때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대한민국회화대전 대상, 동아미술상, 송은미술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06년부터 런던에서 유학하며 첼시예술대학교 대학원 파인 아트 석사 과정, 이스트런던대학교 대학원 프로페셔널 파인 아트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듬해 제2회 삼두미술상 수상자로는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김섭·임영재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독일 쾰른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국내외에서 62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그룹전에도 720여회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로부터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신표현적 시각예술을 지역 풍토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교수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개인전 40회 개최와 그룹전 600회 참여 등의 풍부한 전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과 공간 국제판화비엔날레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목판 기술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문화의 위상을 예술적으로 전환해 현대회화의 구축에 힘썼다.
지난해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자로는 대구 출신 이성경 작가가 선정됐다. 울산 출신이 아니거나 울산과 연고가 없는 첫 수상 사례다.
올해 제4회 삼두미술상 수상자로는 전남 영암 출신 이길래 작가가 선정됐다.
이 작가는 조소 장르 첫 수상자다. 이길래 작가는 전통 조각의 조형성과 물질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를 동시대적 사유 속에서 재구성하며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한 예술가로 꼽힌다. 특히 그는 조각과 설치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매체 활용력, 장소성 및 맥락에 대한 성찰적 해석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빛을등지고2-2_장지에채색,혼합재료_130X162cm_2019

또 다른 그림자 1-3, 장지에 채색, 목탄, 190 x 420cm, 2020

인공풍경21-2(리플렛)



포개진-풍경-24-3_
한지에-채색,-목탄_130

그림자가-되었을-때6-8_2018
크라프트지에-콘테,목탄_109x79cm

또 다른 그림자 1-1,
장지에 과슈,목탄,190x140cm,2020

빛을등지고2-1_2019_
장지에채색,혼합재료_140X190cm (1)

빛을-등지고-3-1_
장지에채색,혼합재료_140x190cm_2019

포개진 풍경 24-2_
한지에 채색, 목탄_140x190cm_2024

# '반구천의 암각화' 예술 작품으로 되살아나다

울산의 자랑, '반구천의 암각화'(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지난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소재로 자신만의 언어로 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많다. 국내 화단에서 일찍부터 시작된 반구천의 암각화 소재 회화작품을 살펴보고 특히, 울산을 터전으로 묵묵히 창작에 힘쓰는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 작품 세계를 들여다본다.

글 고은정 울산매일UTV 뉴스룸 문화 담당
사진 제공 국가유산청·솔거미술관·울산매일UTV

겸재 정선작 반구그림

## ◆ 겸재 정선·김창락·박대성

반구천의 아름다운 구곡 경관은 엣부터 많은 사람들의 시, 글, 그림으로 남아있다.
정몽주(1337~1392)가 유배 중 머문 포은대(반구대의 다른 이름)와 반고서원유허비(울산 유형문화유산), 반구서원, 집청정 등은 선사시대부터 삼국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조상들의 생활과 유람 문화를 알려주는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다.
'반구천의 암각화'를 예술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사례는 겸재 정선(1676~1759)의 '반구' 그림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의 회화 애호가인 권섭이 소장했던 8쪽짜리 '공회첩(孔懷帖)'에 겸재의 산수화가 포함돼 있었다. 겸재의 화첩으로 알려진 '교남명승첩'에도 '언양 반구대'라는 이름의 작품이 실려 있다.

그림을 새기는 장면도 눈에 띈다. 제물인 멧돼지를 얹은 바위로 된 제의 단 앞에서 여성 사제가 제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그림은 당시 국가 주도 민족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 사업은 군사정부 시절인 1967~1979년 문화공보부가 당대 최고의 동서양 화가들을 위촉해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과 경제발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영구히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작품은 박대성 작가의 그림이다.
201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내 솔거미술관은 박 작가의 신작과 소장품 100여점을 새로 전시했는데 그중 대표 작품이 바로 그 해 완성한 '반구대 소견'이었다. 박 작가는 국보 285호인 울주군 대곡천변 반구대 암각화를 모

김창락작 울주 반구대 암각도

박대성작 반구대 소견

또 1978년 한국적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 고 김창락(1924~1989) 작가는 그 해 '울주 반구대 암각도'를 완성했다.
반구대 암각화가 1971년 발견됐고, 발견 이후 7년 만에 서양화로 그려진 것이다. 김창락 작가의 그림은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300호 대작이었다.
암각화 주변의 사실적 묘사에 더해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작업이었다. 60여명 선사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작은 배로 절벽에 다가가 사다리를 놓고 바위

티브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수묵의 세계를 완성했다. 무려 가로·세로 각각 5m와 2m에 이르는 대작이다.
박대성 화백은 한국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겸재 정선, 소정 변관식, 청전 이상범으로 이어지는 실경산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도 출신인 박 화백은 경주 남산에 정착해 20년 가까이 신라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그린 '장백폭포'와 '일출봉'은 남북정상회담 때 접견실에 걸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인숙작 반구대 암각화 문양 조각보

**◆규방공예가 최인숙**

## 암각화 문양, 바느질로 한땀 한땀

50년 바느질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규방공예가 최인숙 씨. 그는 울산 북구 창평동 한 마을 어귀에 <전통조각보연구실>을 운영 중이다.

'규방공예'란 조선 시대 양반집 규수들이 바느질을 통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던 것에서 비롯된 전통공예이다. 최인숙 씨는 학문으로 규방공예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다. 그래서 화려한 이론으로 바느질 이야기를 치장하진 않는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바느질은 50년 일상이 됐다. 무엇보다 바늘을 잡고 실을 꿰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좋았고, 동네에서 유명한 바느질꾼이 돼 부산진시장을 오가게 했다. 가장 잘하는 일이었기에 묵묵히 한평생을 해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손끝은 점차 '생활'에서 '예술'로 진화했고, 세계적인 베니스 비엔날레에까지 초청받았다.

2024년 4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에서, 최 씨는 다국적 작가 공동체 ' 나인 드래곤 헤즈(Nine Dragon Heads)'가 기획한 '노마딕 파티(Nomadic Party)' 전시 부문에 참여해 감물 염색 암각화 문양 조각보, 쪽 염색 암각화 문양 조각보, 손공자수 등 세 작품을 선보였다.

전통 기법과 울산 암각화 문양을 접목한 자연염색 조각보는 국내외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암각화 문양을 넣은 작품으로 1999년 울산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하자, 팔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던 '바느질 생활'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포항, 통영, 대구, 강릉, 용인, 완도까지 갔다. 서울 인사동에선 정기적인 강의도 했다.

스스로 작품에 대한 애정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작품활동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고, 더 나은 제작 방법, 새로운 패턴과 색상의 배치와 구성에 정성과 시간을 투자했다. 이전 작품들이 애벌레였다면, 수상 후의 작품은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날갯짓하는 나비로 진화하고 있었다.

전혀 다른 장르부터 전혀 다른 매체를 봐도 작품 소재로 삼을만한 것들이 무궁무진해 빽빽한 글로, 상세한 그림으로 기록한 것만 수첩 한 권이다.

울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는 중요한 창작 소재가 됐다. 여름 모시천 위에 고래 문양을 수놓은 조각보는 울산의 전통과 생명력을 느끼게 해 준다.

울산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암각화 문양이 새겨진 내 전통 조각보를 선물로 들고 가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면 모두 신기해하고 선물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최 씨도 일본, 중국, 뉴질랜드, 루마니아, 미국 등 세계 어디든 기회가 닿는 대로 전시회를 하기 위해 작품을 싸 들고 달려갔다.

작년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한 영국 남성이 암각화 문양을 알아보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울산에 두 번이나 암각화 관련 심포지엄을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최 씨는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 단조로운 묘한 즐거움은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들며 어지러운 내 머릿속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볼 수 있게 한다"며 "많은 잡스러운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은 작은 바늘이 실을 꿰차고 천을 뚫으며 조금씩 나아갈 때 정리가 되어간다. 마치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의 오두막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최인숙 씨는 지난 2017년 한국예술문화 명인(규방공예 암각화 문양 조각보)으로 선정됐다. 개인전 11회, 해외 전시 58회, 국내 전시 212회 등의 경력과 함께 한국공예예술공모전(전통섬유공예대상 부문)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인숙작 감물 암각화 문양 발

**◆서양화가 오나경**

## 암각화에서 찾은 예술의 본질

40여 년간 울산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이어온 중견작가 오나경은 바위에 새겨진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예술의 본질을 찾았다.

기록되지 않는 순간의 감정과 기억,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찰나의 이미지들을 붙잡기 위해 그는 수십 년간 재료와 기법을 실험해 왔다. 시간을 초월해 박제하고픈 수많은 이미지가 작품의 주된 소재이고, 그 각각의 소재가 가진 귀한 울림을 물성(a property of matter)으로 구현하기 위해 작가는 재료와 기법을 무수히 탐구했다. 오랜 시간 풍화되어도 원형을 간직한 벽화 느낌의 엔틱한 화면 효과를 구현하는데 30년 이상 공을 들여왔다.

"다섯 살 딸아이의 낙서를 보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순수하고 기발한 흔적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캔버스는 왠지 불안했죠. 그때부터였어요.

오나경작 heritage 15-2

오나경작 now & then 7 (blue)

바위에 수천 년을 새겨져 있던 암각화를 떠올린 것이요"
그가 구현한 화면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도 풍화되지 않는 벽화 같은 질감과 깊이를 품고 있다. 요철 화지(ARCHES)에 오일바와 오일파스텔로 색을 칠하고 긁어내는 스크래치 기법은 단순한 회화적 표현이 아니다. 그 자체가 물성과 흔적, 그리고 기억의 보존을 위한 일종의 '작가적 제의(祭儀)'다.
"작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반복해서 긁고 칠하다 보면 팔이 나가요. 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색감과 마티에르가 나와요. 단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릴 가치가 있는 것'을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그려낼지 묻는 시간이죠."
'반구천의 암각화'는 오 작가의 예술세계에서 중요한 축을 이룬다.
암각화 소재의 작품들은 고유의 재료 기법과 매우 잘 어울려서 작품성에 시너지를 주면서, 초현대적인 감각을 이끌어 내는 특별함이 있다.
그는 이들 유적의 형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초현대적인 감각과의 연결점으로 해석해 왔다. 수십 점의 관련 작품 가운데 일부는 십수 년 전 울산교원연수원에 기증되기도 했다.
오 작가는 미술교사로서도 오랜 기간 재직하며 생태교육 프로그램, 문화정책 자문, 교과서 집필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왔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예지'아츠 프렌드' 등에서 200편이 넘는 예술 칼럼과 문화 에세이를 써온 그는 일상과 예술을 잇는 '통로'로서의 삶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저는 미적 가치를 좇기 위해 일상의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도달점은 없지만, 제 작업이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고, 작가 의식이 뚜렷하며, 독창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작에 정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제 예술을 통해 행복해지길 바라고요"
바위에 새겨져 오랜 세월을 지나며 그 사이 풍화되고 쓸리고 또다시 새겨져도 결국 그 흔적을 수천, 수만 년 지니고 있는 암각화들. 시간의 궤적을 안고 면면히 이어지며 버텨온 흔적들. 작가는 소중한 흔적들을 바위 같은 질감의 요철 화면을 채우고 긁어내는 행위를 반복하며 바위에 새기지는 못하지만 암채화의 느낌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오 작가는 지극히 수공적인 작업에 천착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놀래킬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평면 작업의 핵심 논제를 이행 중이다.
"누구와도 같지 않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화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작품을 통해 각자의 기억과 유산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중견작가 오나경은 지난 7월22일부터 8월24일까지 개인전 'Heritage; 잃고 싶지 않은 것, 보존해야 할 것들'을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제1전시장에서 초대개인전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서양화가 양희성

# "암각화는 나의 고향, 나의 시간"

"어릴 적 외갓집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으로 시작된 암각화를 담은 창작 작업이 벌써 40년 가까이 됐네요."
울산 남구 신정동, 오래된 골목 안쪽. 작고 조용한 작업실 문이 열리자, 캔버스 위에 원시의 도상이 새겨지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붓을 쥔 작가 양희성은 환한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반구대 암각화를 화폭에 옮겨온 세월만 40년, 양 작가는 울산을 대표하는 '암각화 작가'로 불린다.
울산 남구 신화예술촌에서 해설사로 일하며 관광객들 앞에 서기도 했고, 한때 닭을 키우기 위해 울주군 온양에서도 지냈다는 그는, 소탈한 웃음 속에 다양한 삶의 궤적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전, 닭을 돌보다 늦은 밤 발을 헛디뎌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그때부터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예전처럼 돌아다닐 수 없으니 오히려 작업에만 매달리게 됐죠. 강제로 작업시간이 늘었다고 할까요."
그 말에 담담한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창작에 대한 열정이 스며 있었다.
양 작가는 "암각화는 나의 기억이자 시대의 언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양 작가의 대표작 '원시회귀' 연작은 반구대 암각화를 모티브로 한 회화다. 1980년대 후반, 울산현대미술회(현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전신)의 '태화강 백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암각화 작업에 뛰어들었다.
"반구대 근처 식당 벽에 걸린 암각화 탁본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찍어와서 처음 그려봤죠. 그 그림이 제 작업의 출발이었어요."
작품 제작은 번거롭고 고된 수작업의 연속이다. 나무판을 조립해 화판을 만들고, 한지를 붙인 뒤 백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해 밑작업을 한다. 빨강, 검정, 파랑의 물감을 겹겹이 쌓아 암면 질감을 구현한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암각화가 가진 거칠고도 묵직한 느낌이 화폭에 살아나죠"
그의 화폭은 처음엔 갈색톤이 주를 이루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작품은 점점 더 푸르고 밝아졌고, 최근에는 화려한 색감도 시도하고 있다.
비구상 작업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현대미술의 '어려움'에 거리감을 느낀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현의 방향을 전환했다.
"현대미술의 낯섦, 즉 모르겠다는 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기호화된 도상 하나하나를 개별화해 그렸고, 3~4호짜리 소형 캔버스를 이어 붙여 암각화 전체의 느낌을 전달하려 했죠"
2008년, 울산시청 신청사 미술장식품 공모에 당선된 것도 이 '원시회귀' 연작이었다. 앞서 암각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전국 공모전에 다수 출품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회, 입선 7회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양희성 작가에게 암각화는 단순한 유물 그 이상이다. 그는 고래와 호랑이와 함께한 유년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외갓집이 있던 울주군 구랑마을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인근이다.

양희성작 원시회귀 시리즈 중

양희성작 원시회귀 시리즈 중

초등학생 시절, 외사촌들과 소를 먹이며 고래와 호랑이 도상이 새겨진 바위를 보던 기억이 작업의 뿌리가 됐다.
그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울산미술협회 회원으로, 울산미술의 궤적을 함께해온 작가다.
양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누군가에겐 암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조용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작은 어렵지만, 그는 오늘도 4호, 10호, 20호 크기의 화판 위에서 고래와 호랑이를 그리며 기억과 시간을 화폭에 새긴다.

◆ 사진작가 김양수

## 선사시대 시간 품고 살아있는 기억을 잇다

사진작가 김양수 씨는 10여 년 전 반구대 암각화에 우연히 들렀다가 암각화가 위치한 공간에 매료됐다.
단순한 재현과 복제의 작업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는 있었다. 문득 사진가로서, 예술가로서 반구대 암각화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반구대가 가진 단순한 기록적 역사성에 서 사진가의 예술성을 담아 재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현, 복제의 예술이라는 사진 작업의 한계 때문에 당장 보다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표현 방법을 고민하다 시간의 흔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작업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어렵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2017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단됐다. 전신마비로 1년간 침대에 누워야 했던 그는, 다시 일어나 카메라를 들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김양수작 반구대 기억의 움직임

김양수작 암각화 가는길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그의 예술적 에너지를 키워냈다. "이 작업만큼은 어떻게든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회복 후 그는 더욱 집요하게 반구대 암각화의 시간을 파고들었다.
'푼크툼(Punctum)'. 롤랑 바르트가 말한 이 사진 개념은,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이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억과 경험으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김양수 작가는 암각화 작업을 통해 바로 그 '푼크툼'을 구현하고자 했다.
반구천의 새벽 안개 속에서, 고래가 유영하듯 흐르는 시간의 풍경을 연출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델의 몸짓으로 재현하고, 내추럴한 표현에 합성 기법을 결합했다. 시간의 흐름에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반구대의 풍경을 재현하고 작가의 시선에서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보고 "실제 풍경인 줄 알았다"고 말할 만큼, 그의 사진은 기록을 넘어선 예술적 현실감을 담아냈다.
김 작가는 반구대 암각화를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보지 않는다. 그의 사진 속 암각화는, 시간을 뚫고 현재로 걸어 들어온 '살아있는 기억'이다.
그는 '기억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암각화 가는 길을 마을 초입부터 시간의 흔적을 재현하는 작업을 했다.
김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반구대의 풍경을 재현하고 작가의 시선에서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말한다.
"반구대 암각화는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메시지와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이다"
사진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교육으로도 이어진다. 한때 울산에서 사진 학원을 운영했고, 현재는 동명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겸임교수이자 뉴푼크툼 대표, 다다아카데미 사진교실 원장, 울산사진학회 회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전문작가든, 취미생이든 사진이 가진 내용과 형식이 어우러진 예술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창작 작업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김양수 작가는 내년, 반구대 인근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푼크툼'적 관념으로 담아 암각화 이야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시와 출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반구대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사진은 말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곳,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고.
김 작가는 "암각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억의 기록으로 선조들은 이 돌 위에 그들의 삶의 순간을 새기며 후대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제 작품을 통해 암각화가 지닌 다채로운 의미를 탐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수 작가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 디자인을 전공했다. 2020년 개인전'처용 울산을 만나다'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2025년 울산문화예술회관 초청 작가 초대전"암각화와 현대예술전 단체전에 참여해 왔다.

# 書藝이야기

**이종민** 사)한국서협 울산지회장

## 한문서예(漢文書藝)의 변천사

**◆한국에서 한문서예의 발달과정- 시대의 문화와 함께 성장하다.**

중국에서는 서법(書法), 한국에서는 서예(書藝), 일본에서는 서도(書道)라 불리우는 한문서예(漢文書藝)는 수천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동아시아의 중요한 예술 형식 중의 하나이다. 단순한 문자 기록을 넘어 정신세계와 철학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이 응축된 문화유산이며 종합예술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한문서예(漢文書藝)는 중국의 영향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한자 문화권의 공통된 전통을 계승하면서 점차 시대에 따라 고유한 조형성과 미감을 발전시키면서 독자적인 예술적 영역으로 형성해 왔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한문서예의 기원과 발전 과정, 시대별 특징, 대표 서예가와 서체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문서예의 변천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대(古代): 한문서예의 수용과 기초를 형성하다.

한국에서의 한문서예는 한자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자가 점차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삼국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한자가 국가 통치와 행정, 종교, 문화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한문서예는 대부분 중국 한나라의 예서(隸書)와 초기형태의 해서(楷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비, 백제 금동대향로,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등에 새겨진 비문들은 당시 서체의 수준과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광개토대왕릉비(414년)는 고구려의 국력을 상징하며 예서에서 해서로 이행하는 서체 양상을 보여준다. 진흥왕 순수비에서는 정제된 해서의 예로서 서예사적 가치가 높고, 백제 금동대향로 명문에 새겨진 글은 백제 특유의 세련되고 균형 잡힌 필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국 시대 말기부터는 왕실과 귀족층 중심으로 서예가 예술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승려들이 서예를 통해 불교 경전을 필사하면서 서예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 당시의 서체는 중국 한나라 후기에서 남북조 시대의 서풍에 영향을 받아 비문(碑文) 중심의 전각 서체가 주를 이루어 기교보다는 실용성과 권위를 강조하였다.

⇒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 **서예로 불교문화를 꽃피우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대의 서풍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구양순(歐陽詢), 안진경(顔真卿), 저수량(褚遂良) 등의 서풍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글씨체는 왕실 문서나 불경 필사에 주로 사용되었다. 대표 서예가로 김생(金生)이 있다. 고려의 서예가와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동방서성(東邦書聖)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의 필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자주 문헌에 언급되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가운데 서예 역시 종교적, 학문적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특히 불교의 번성으로 인해 대장경(팔만대장경-13세기)의 조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이지만 그 원본 필사에는 고도로 세련된 해서가 사용되었다. 이는 목판 인쇄술의 발전뿐 아니라 필사본에서도 수준 높은 서예 작품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필경사들이 정성 들여 사경한 필체는 불심과 예술의 융합체라 할 수 있다. 불경 사경에서는 해서와 행서가 주로 쓰였으며 종교적 경건함과 정제미가 강조되었다. 고려의 대표적인 서예가로는 탄연, 혜허, 지공, 나옹 등이 있으며 이들은 불경 필사뿐 아니라 왕실 문서, 비문 등의 작성에 탁월한 기량을 보였다.

⇒ 조선 시대: **서예를 학문화와 예술화로 승화(昇華)시키다.**

조선 시대는 유교적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서예가 사대부의 교양으로 중시되던 시기이다. 서예는 문인의 내면과 학문 수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고, 동시에 예술로 완성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의 관리와 학자들이 가장 선호 했던 송설체(松雪體)라 불리는 조맹부(趙孟頫)의 서풍이 널리 유행하였다. 서체는 단정하고 안정적인 해서와 행서가 중심이었으며 문서나 어필(御筆)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고 태종, 세종 등 왕실 인사들이 서예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왕실 주도로 서예가 발전하였다. 특히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학문과 정치의 중심이 되면서 서예는 사대부 계층의 교양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점차 송설체에서 벗어나 문인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 서예가는 김정희(金正喜)이다. 북쪽의 강건한 비문체(北碑)와 남쪽의 유려한 서첩체 (南帖)의 조화를 추구하며 '추사체'라 불리는 독창적인 서체를 창안하였다.  그는 한국 서예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다. 추사의 서예는 단순한 글씨체를 넘어서 문인정신과 학문적 성찰이 응축된 예술이기도 하다. 이후 후대 서예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해서, 행서, 초서등 다양한 서체가 혼합된 개성적인 문인서예가 유행하였으며 붓글씨를 통한 자아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시기 문인들은 시·서·화 일치(詩書畵一致)의 조화속에서 예술의 궁극적 경지를 추구하였다. 이는 서예가 회화와 결합되는 독특한 예술 양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서예는 단순한 필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가치관, 문인의 자아 표현,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일환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중국의 서체를 본받아 격식을 중시하였지만 중기 이후에는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문인 서예가 등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후기에는 김정희를 중심으로 독자적 미학을 완성하며 조선 서예의 절정기를 이루게 되었다.

⇒ 근·현대: **한문서예의 변화와 전통 계승으로 이어지다.**

개화기 이후 서양문화의 유입과 함께 한문서예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식 서도(書道)교육이 도입되면서 전통 서예의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억압 속에서도 일부 서예가들은 전통 한문서예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소전 손재형, 여초 김응현, 해강 김규진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체연구와 후학을 양성하고 서예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새로운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광복이후 한문서예는 민족문화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다양한 서예 단체의 활동과 전시회,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대중 속으로 스며들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서예가 단순한 문자 예술이 아니라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다. 그리고 추상성과 조형미를 강조한 실험적인 작품들도 등장하였다. 현대 한문서예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예가 전통적 수양 수단을 넘어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시기이다. 전통적인 해서, 행서, 초서 등을 계승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창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적 서풍이 대두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서예와 추상 미술이 결합된 '문자 추상'이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부터 서예는 더 이상 단순한 필법의 수련을 넘어서서 조형성과 감성의 표현 수단으로 작품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현대에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서예와 캘리그래피, 설치미술, 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결합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과 공모전 중심의 제도화된 평가 체계가 정착되며 서예계의 구조적 기반도 확립되었다.

결론적으로 근·현대의 한문서예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예술적 성격을 강화하였으며 표현 방식과 매체의 다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 현대와 미래: **디지털 시대에서 서예가 새롭게 진화하다.**

21세기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서예의 표현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붓과 먹의 사용에서 벗어나 디지털 붓, 타블렛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서예'가 등장하였다. 서예가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영상 예술과 결합되면서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 서예작가인 유홍준, 김영자. 이응노등은 서예를 세계 미술시장과 접목한 대표적 작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전통 한문서예의 가치와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서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심미적 감성을 드러내는 예술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당당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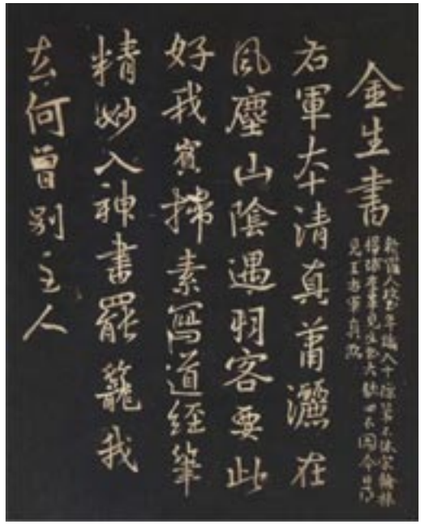
정리해 보자면 한문서예는 단순한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반영하는 예술이다. 고대의 전각 서체에서 시작하여 삼국의 정치문화, 불교사상의 융성과 함께 한국의 역사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문인정신의 정수를 담아 예술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근현대를 거치며 민족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찾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재해석되고 있다. 미래에는 세계 예술시장에서도 당당히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문서예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중국(中國)의 서예사(書藝史)

중국은 우리와 이웃한 나라로서 역사상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맥락을 같이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서예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서예를 재인식함은 물론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왕조별로 간단히 적어 본다.

① 은(殷, B.C.1120경)의 글씨는 거북의 등이나 짐승의 뼈에 새겨진 갑골문(甲骨文)이다.
② 주(周, B.C.1120-B.C.222)의 글씨는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종이나 솥에 주조된 종정문(鐘鼎文, 金文이라고도 함)과, 북 모양의 돌에 새겨진 석고문(石鼓文)이 있으며, 석고문은 고박하고 풍만한 필획으로 서체상 대전(大篆)이라 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산씨반, 모공정, 석고(石鼓) 등이 있다.
③ 진(秦, B.C.221-B.C.206) 시대에는 대전을 정리·통일하여 소전(小篆)을 만들었는데, 전서의 완성형으로, 전아, 장중, 원만하며 좌우 대칭적 결구가 특징이다. 주요 작품으로 태산각석, 낭야 대각석 등이 있다.
④ 한(漢B.C.202-A.D.220) 시대는 예서(隸書)로 대변되는데 필의와 속도감이 붙은 방형이 특징이다. 전한· 후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한 때에는 전서가 실용에 불편하였으므로 점획이 생략되고 곡선이 직선으로 변한 소박한 고예(古隸)가 나타났고, 후한에 와서는 세련미와 파책의 미를 강조한 팔분예(八分隸)가 나왔다. 주요 작품으로는 예기비, 을영비, 사신비, 조전비, 장천비 등이 있다.
⑤ 위(魏), 오(吳), 촉(蜀)의 삼국 시대(A.D.220-A.D.280)에는 해서, 행서, 초서가 등장하여 글씨가 비로소 생활 서체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 진(晉A.D.280-A.D.420) 시대에 와서는 이상적인 행·초서가 정리되어 온화하고 유려한 서풍이 나타났으니 난정서로 유명한 왕희지는 서성(書聖)의 칭호를 얻었고, 그 아들 왕헌지도 유명하다.
⑦ 남북조(南北朝) 시대(A.D.420-568)의 남조의 글씨는 왕희지의 영향으로 온화, 세련된 행서를 위주로 하고, 북조는 굳세고 질박한 필치의 해서를 위주로 하고 있다. 북조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장맹룡비, 용문조상기 등이 있다.
⑧ 당(唐, A.D.618-A.D.907) 시대에 이르러는 서예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모든 서체가 완성되자 서체의 변천은 종식되고, 서풍의 변화만 있게 되었다. 엄정한 구양 순의 서풍과 웅혼·풍만한 안진경의 서풍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구양 순의 구성궁예천명, 저수량의 안탑성교서, 안진경의 안근례비 등이 있다.
⑨ 송(宋, A.D.910-A.D.1279) 시대에는 행서와 초서가 주류를 이루고, 당의 엄격한 형식의 서법에서 벗어나 개성적 서풍이 일어났다. 주요 작가로는 채양, 소식, 황정견, 미불 등이다
⑩ 원(元, A.D.1271-A.D.1368) 시대에 이르러는 고전의 존중과 개성적 서풍이 병행하였고, 송설체(松雪體)가 유행하였으며, 조맹부가 일가를 이루어 우리 나라에 까지 그 영향을 기쳤다.
⑪ 명(明, A.D.1368-A.D.1644) 시대에는 서법의 형식을 중시한 고전파와 창조적 변화를 중시한 개성파가 병행하였다. 고전파로는 축윤명, 문징명, 동기창 등이 있고, 개성파로는 장서도, 왕탁, 부산 등이 있다.
⑫ 청(淸A.D.1644-A.D.1912) 시대에 와서는 고증학의 영향으로 금석학이 발달하였고, 전서, 예서가 부흥되고, 전각이 융성하여 서예의 혁신을 가져 왔다. 고전 금석문 위주의 비파(碑派)와 법첩 중심의 첩파(帖派)로 나누어 지며, 등석여, 이병수, 오양지, 옹방강, 완 원, 하소기, 조지겸, 오창석, 제백석 등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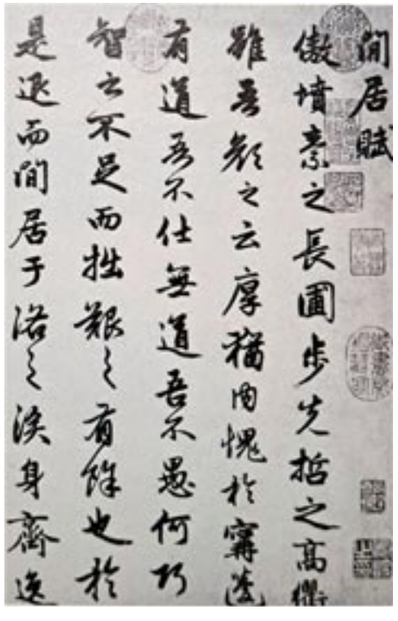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의 묵란-난맹첩(蘭盟帖)



(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 통일신라 고승으로 효공왕과 신덕왕의 스승인 낭공대사 행적(832~917)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최인연(868~944)이 글을 지었고 김생의 해서와 행서 글자를 낭공대사의 문인인 단목 스님이 집자하였다.)

(군상-이응로화백)

(북한산 진흥왕순수비)



(한거부-조맹부글씨)

# 즉흥곡, 바가텔 & 악흥의 순간

##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

"슈베르트의 피아노곡은 잊힌 행복의 메아리 같아.
한순간에 모든 과거가 돌아오지."

- 마르셀 프루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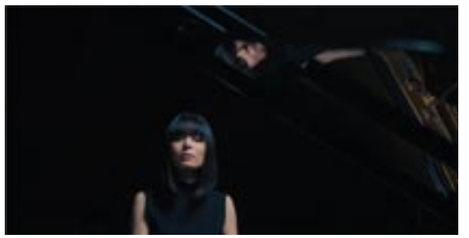
시인 하이네는 낭만주의에 대해 "한 줄의 시, 한 조각의 선율로도 우주를 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낭만주의 소품이 가진 즉흥성과 서정성에 대한 근원적인 심정을 드러낸다.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하고 나폴레옹 전쟁까지 거치면서 유럽의 음악계는 고전주의적 구조와 형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정서를 드러내려는 미학으로 이동한다. 때마침 피아노가 보급되면서 아마추어 연주자나 여성 피아니스트들이 살롱음악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짧고 감성적인 작품들이 유행한다. 베를리오즈가 "음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평할 만큼, 대중적인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맞춰 작곡가들도 대규모 형식의 음악뿐 아니라, 짧지만 직접 내면을 울리는 섬세한 소품에 눈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제목이 즉흥곡, 바가텔, 악흥의 순간 같은 것들이다.

**조희창**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음악감독

**즉흥곡(Impromptu)** 이란 용어는 '준비된', '즉각적인'의 뜻을 가진 promptus와 부정사 Im의 조합이다.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악상을 소품 형식으로 작곡한 것을 말한다. 1817년 <Allgemaine Musikalische Zeitung>에서 얀 바츨라프 폰세크의 피아노곡에 대해 말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낭만주의적인 이상에 들어맞는 용어여서 금방 퍼져나갔고 특히 피아니스트들이 널리 사용한 용어가 되었다.
슈베르트는 8곡의 즉흥곡을 썼는데 Op. 90과 Op. 142에 4곡씩 포함되어 있다. Op. 90의 1,2,3번은 특히 인기 있다. 쇼팽은 더욱 정돈된 형식의 즉흥곡을 4곡(op.26,36,51,66) 남겼다. 그중에서 사후 발견된 <환상 즉흥곡>(Fantaisie-Impromtu Op. 66)이 가장 유명하다. 그 외에 시벨리우스 <6개의 즉흥곡>, 포레 <6개의 즉흥곡>, 스크랴빈 <9개의 피아노 즉흥곡> 등이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같은 제목의 곡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바가텔(Bagatelle)**은 프랑스어로 "하찮은 것" "잡동사니"를 뜻하는데, 베토벤이나 드보르자크 등이 이 용어를 잘 사용했다. 작고 가볍지만 '소중한 순간'을 담은 곡이다. **악흥의 순간(Moments musicaux)**은 말 그대로 음악적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다양한 성격 소품을 통해 찰나의 정취를 예술로 고양시킨다.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 등의 명곡이 있다. **알붐블라트(Albumblatt)**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독일어로 '앨범에 붙이는 짧은 곡'의 의미를 지닌 소품집이다. 개인에 대한 추억을 담거나 헌정의 성격을 지닌다. 슈만, 그리그, 차이콥스키, 바그너 등이 이 용어로 작은 음악을 담았다. 이런 제목이 붙은 곡들은 모두 '순간을 담은 음악'이고자 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외관보다는 내면을, 시간보다는 순간을, 구조보다는 즉흥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다.



베토벤
: 바가텔 WoO 59 '엘리제를 위하여'

슈베르트
: 즉흥곡 D.899 작품90-3

베토벤은 바가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간단하고 연주 시간이 짧으며, 비교적 즉흥적인 분위기의 소품이라는 점을 겸손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젊은 시절에 작곡한 작품33을 비롯하여 작품119, 작품126 등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작품126의 6곡일 것이다. 베토벤은 이 여섯 곡을 하나의 사이클처럼 생각해달라고 직접 언급해놓았으며, 자신의 작품 중에서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정적이면서도 함축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곡으로, 절대 사소하지 않은 작품이다.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가텔은 '엘리제를 위하여'일 것이다. 베토벤이 1810년경에 작곡했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 출판되어 WoO(작품번호 없는 작품) 59번으로 등록되었다.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로, 자동차가 후진할 때 나오는 음으로, 심지어는 청소차가 지나갈 때의 음악으로 흘러나온다. 너무 익숙한 멜로디라서 식상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매우 따뜻하고 회상적인 곡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엘리제가 누구인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베토벤이 사랑하던 테레제 말파티, 가깝게 지내던 엘리제 바렌스펠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예 실제 인물이 아니라 문학적인 상징으로 썼다는 얘기, 또는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붙였다는 말도 있다.

슈베르트는 20곡이 넘는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는 와중에 형식에서 자유로운 즉흥곡을 8곡 작곡했다. 1827년에 출판된 작품90과 슈베르트가 죽은 지 한참 지나 1839년에 출판된 작품142에 각각 4곡씩 포함되어 있다.
당대에는 "사소한 살롱 음악"이라 폄하되기도 했지만, 브람스, 리스트, 슈만 같은 작곡가들이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재조명되었다. 브람스는 "이토록 노래적이며 마음을 울리는 피아노 작품을 그 누가 쓸 수 있었겠는가?"라며 슈베르트 피아노곡의 가치를 강조했고, 리스트는 "단순함이 곧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곡"이라고 하면서 즉흥곡을 연주회 프로그램에 넣었다. 슈만 역시 "낭만적 상상력의 온화한 꽃들이며, 피아노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증명한 예는 드물다."라고 극찬했다.
8곡 모두 저마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Question>이라는 팝송 멜로디로 들어가 유명해진 작품90-3번과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의 영화 <4분>에서 흘러나온 작품142-2번이 유명하다.

**슈베르트**
**: 악흥의 순간 D.780 작품94 중 3번 f단조**

음악평론가 에두아르드 한슬릭은 이 곡에 대해 “순간의 감정이 시간과 영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극찬했다. ‘악흥의 순간’(Moments musicaux)이란 음악적 순간을 포착한 짧은 기악 소품을 말한다. 낭만주의 시대 피아노 독주곡으로 많이 작곡되었고 형식은 주로 ABA 형식이나 변주곡 형식을 사용했다.
슈베르트의 작품은 1823~28년 사이에 작곡된 6곡의 피아노 소품집이다. 곡마다 독특한 정서와 색채가 담겨있어 후대의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슈베르트에 이어 리스트, 드보르자크, 글라주노프, 라흐마니노프 등이 같은 제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새겨놓았다.
1곡 C장조는 당당한 행진곡풍의 리듬을 가진다. 2곡 a단조는 반복적 리듬 속에서 고요한 정서를 담는다. 3곡 f단조는 가장 유명한 곡으로 장난스러운 리듬 속에 불안과 회복이 교차한다. 4곡 c#단조는 왼손 아르페지오 위에 흐르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름답다. 5곡 f단조는 화려하고 빠른 즉흥곡이다. 6곡 Ab장조는 따뜻한 감성으로 짧은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라흐마니노프**
**: <6개의 악흥의 순간> 작품16 중 4번 E단조**

라흐마니노프 <6개의 악흥의 순간>(Six Moments Musicaux, Op.16)은 1896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 모음이다. 각각의 곡은 고전적인 성격소품(카프리치오, 노투르노, 행진곡 등)의 형식을 빌려, 짧지만 감정적으로 깊이 있고 피아노의 기교가 돋보인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었고, 일설에 의하면 기차에서 지갑을 도둑맞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어쨌거나 <악흥의 순간>은 긴박한 상황에서 초단기간에 완성된 것이다. 훗날 라흐마니노프도 이 작품이 "내가 단기간에 가장 급하게 써낸 작품"이라고 회고했다.
그런데도 음악적 깊이와 기교, 감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피아니스트 호로비츠는 이 곡이 “라흐마니노프의 감정이 가장 농축된 짧은 형식의 걸작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총 6곡 중 4번과 6번이 자주 연주된다. 4번 e단조는 매우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곡이다.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폭발적인 피아니즘을 느낄 수 있다.





오나경의 이지아트(EasyArt)컬렉션45

# 컨템퍼러리아티스트의 작품세계 23

## (동시대 미술의 혁명 / 표현 기법의 발견)

**오나경** 서양화가/예술칼럼니스트

‘이런 추상화는 처음이다.’
지난봄 홍콩의 한 갤러리를 방문한 아트피플들이 경이에 차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그 유명한 홍콩의 아트위크를 맞아 ‘아트 바젤 홍콩’을 비롯한 다양한 페어와 세계 주요 갤러리 밀집 거리를 다니던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다 ‘하우저 앤 워스 홍콩’에서 열리는 마크 브래드포드의 개인전을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전해진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추상화’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세계 화단에 확고한 위상을 굳힌 미국의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구한 재료(종이, 인쇄물, 오브제 등)의 상징성을 활용해 콜라주(또는 데콜라주) 작품을 제작하고 그 속에 정치, 사회적인 다양한 스토리와 이슈를 담아내는 작가로 자신의 장르가 확고한 사람이다. 메시지와 더불어 정교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그의 독보적인 화법은 동시대 미술의 또 한 축으로 존재한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라하면 흔히 구상적인 표현을 떠올린다. 불합리한 광경이나 인물의 캐릭터를 고발 차원에서 극악하게 구현해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믿는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민중미술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버젓한 미술 영역이지만 미학적 소견을 내기가 무색하게 민망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가. 언제부터 미술이 이런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의 화가 마크 브래드퍼드(64)가 동시대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예술가로 평가받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작품들은 구조적 폭력이나 인종차별, 성 정체성 또는 불합리한 정치 같은 21세기 핫 이슈를 화면에 담으면서도, 이를 미적 감수성을 순수하게 자극하는 고도의 시각적 추상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재현 대신 해체로, 고발 대신 은유로 시도하는 그의 작품들은 어느새 ‘사회적 추상화’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의 작업은 캔버스에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각성과 울림을 줄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마크 브래드포드의 추상 작품이 의미 있는 것은 단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뜨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작업은 잭슨 폴록 등 ‘뉴욕스쿨’의 추상표현주의 계보에 놓이지만, 훨씬 폭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가 이른바 소외 계층 출신이지만 그들의 정서를 격조 있는 예술로 대변하고 분노하며 저항하

였다는 데 있다. 그는 서구 중심의 백인, 남성, 엘리트 미학 중심의 단선적인 주류 미술사에서 지워진 흑인, 퀴어, 도시 하층민의 서사를 전면에 세운 사람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재료를 층층이 덧대어 붙이거나(꼴라주), 긁고 찢으며 파내는(데꼴라주) 방식으로 구축한 그의 추상 화면은 미처 잊고 있던 기억과 역사를 소리 없이 꼼꼼하고 치밀하게 증언한다. 2021년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그를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싱글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도우며 유년기를 보낸 그가 뒤늦게 미술에 입문해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로 우뚝  선 이야기, 30대에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한 그가 2017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로 발탁되고, 세계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까지..., 본고에서는 흑인, 퀴어, 도시 하층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부산물인 포스터, 신문지, 전단지 같은 하찮은 재료로 경고성 짙은 '사회적 추상화'를 개척한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 세계를 간략히 훑으며, 그의 입지전적 인생과 예술의 사회 고발적 기능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를 가져볼 것이다.

▶마크 브래드포드. 사진 제공: 존 D. & 캐서린 T. 맥아더 재단

## ◆ 마크 브래드포드/'사회적 추상화'

동시대 추상회화를 대표하는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 1961~ )는 추상회화라는 형식을 통해 도시 공간에 새겨진 사회적 기억과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정체성의 복잡성을 집요하게 탐구한다. 그의 작품들은 광고지와 전단, 파마 용지, 신문지 등 도시의 일상적 잔재를 수집하고, 이를 반복해서 붙이고 찢고 긁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는 자신의 화면을 하나의 사회적 장소로 간주하고, 조형 언어로서 도시와 공동체, 역사의 불균형에 대해 시각적으로 증언한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사회적 추상'이라 불리며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구체적인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추상의 화면이지만, 그 안에 인종과 계층 간의 권력과 불평등,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로스엔젤리스 사우스 센트럴에서 태어난 그는 싱글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도우며 유년기를 보내고 31살에 미술계에 입문해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로 우뚝 섰다. 30대에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그는 2017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국관 대표로 발탁됐고, 2021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올랐다.

그는 화면을 조성할 때 주로 길거리에서 수거한 전단이나 포스터, 신문지 등을 겹치고, 긁고, 찢어내는 작업 방식을 고수한다. 그 이유를 그는 " 자신만의 고고학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콜라주로 지층을 쌓은 다음, 다시 파헤치면서 흑인, 퀴어, 도시 하층민의 삶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른바 '데콜라주' 기법으로 불리는 뜯고 파는 작업을 할 때 그는 심지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쓰는 도구를 사용한다. 망치로 두드리고, 끌로 파고 붓으로 털어낸다. 작품에 담긴  저항의 사회학은 그래서 고졸(古拙)하면서도 고고(孤高)하다.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은 복잡성, 계층화, 인종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평 기능이 공고하게 장착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에 대한 회복력은 전 세계 미술계를 공명시키며 그를 동시대 미술의 강자로 만들었다. 그의 작품 스타일은 추상표현주의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추상으로 인지된다. 레이어 콜라주 기법을 통해 엄청난 규모까지 확장되며 종이와 코일 등으로 파기, 찢기, 붙이기, 고압 세척 및 연마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규모로 작업된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도시의 지형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나 지도를 닮아 있으며. 다소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잘 구조화된 작품들이다.

### #. '사회적 추상'의 개척자

마크 브래드포드는 196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전술한 대로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그는 30대에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추상화가가 되었다.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 예술 대학으로 편입해 다시 수학했다. 1995년에 미술 학사 학위를, 이어서 1997년에 미술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30세의 나이로 학업을 마쳤다. 그 후 사회적 약자와 도시의 현실을 주제로 작업하며, 전통적인 미술 재료보다 광고지, 포스터, 낡은 종이 등을 독창적으로 활용한다. 추상화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에 도시의 흔적과 사회적 메시지가 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는 그의 작업에는 흑인 인권, 성소수자 문제, 빈곤과 계층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깊게 녹아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해 예술로 대변하고자 하는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의식을 넘어서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마크 브래드포드의 예술은 재료의 의미, 기법의 독창성, 사회적 메시지가 어우러져 동시대 화단의 특별한 위치를 획득한 것이다. 흔한 말로 그는 폐기물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예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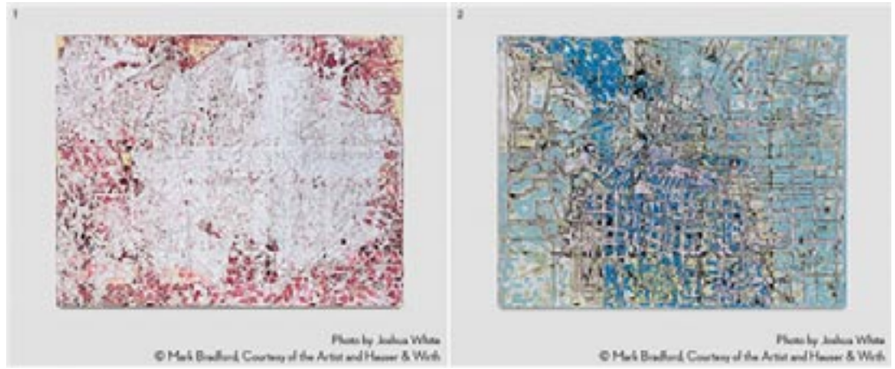
그가 도시에 널린 종이 재료들을 수집해 캔버스에 붙이고, 뜯고, 다시 덧붙이며 레이어하는 과정은 마치 도시가 시간이 지나며 변해가는 모습을 닮았으며 현실과 역사, 개인의 기억이 뒤섞이는 복잡함이 시각화되어 있다. 예컨대 수많은 종이조각과 붓 자국으로 혼란스럽지만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 대표작 'Helter Skelter I'는 도시의 폭력성과 혼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또 다른 대작 'Pickett's Charge'는 단지 규모만 큰 작품이 아니라 미국 남북전쟁의 전투 장면을 토대로 한 설치 작품으로, 역사의 균열과 현재의 갈등을 장엄하게 연결해 보여준다. 또한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논평 외에도 가끔 젠더에 관한 내러티브와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하므로 그의 작품은 전통에 도전하는 인종, 정체성, 성적 지향점을 내포하기도 한다.

### #.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 세계

마크 브래드퍼드는 종이에 다시 종이를 쌓아 붙이는 '콜라주'와 반대로 종이를 찢고 태우고 떼어내는 '데콜라주' 기법을 동시에 활용한 추상 작품으로 제일 많이 알려졌다.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 고품격 비주얼과 작품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겸비한 그의 작품은 미술관과 컬렉터의 높은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다. 종이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의 작업은 비디오, 판화, 설치도 아우른다.

그는 특정 그룹을 다른 그룹과 구분 짓는 커뮤니티 개념에 관심이 많다. 오랫동안 소외된 공동체를 그룹화하고 수량화한 그는 '지도' 형상을 모티브로 주제를 부각시키는 작업을 했다. 광고에 쓰였던 낡은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 도시의 대중교통망, 큰길, 수도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도시계획 시스템이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나누고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지 파고 들어 도시 공간도 결국 권력에 기반한 시설에 따라 분배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고발했다. 이렇듯 도시 속 이질적인 커뮤니티와 인간 존재를 추적하고 숨어 있는 사회적 불의를 들춰내어 화면에 채우는 일이 그의 구체적인 그의 작품세계다.

▶ 마크 브래드포드 Mark Bradford (1961년~  미국),
미국 로스엔젤리스에서 태어나 '사회적 추상'이라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동시대 미술가이다. 그는 주로 버려진 종이를 재료로 하여 꼴라주 또는 데꼴라주 기법으로 도시의 거리, 이민자 문제, 흑인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소재로 삼아 추상적인 패턴과 질감으로 도시의 역사와 기억에 대해 시각적인 재해석을 한다.




▲ 지도 형상에 의식화된 마크 브래드포드의 '사회적 추상 회화'
좌/'Let Go of Me!! Let Me.....', 캔버스에 혼합매체, 209.6×265.4cm, 2018 우/'Next, Storm the Castle', 캔버스에 혼합매체, 213.4×274.3cm, 2018

## ● 재료와 기법

### 1. 폐기물에서 탄생한 신랄한 시각 언어

그는 특히 작품 재료를 고르는데 신중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거리에서 광고 포스터와 전단지, 미용실 파마지, 신문지 등을 수집해 이들 재료가 사용되고 버려진 맥락과 역사를 작품에 녹여낸다. 이런 작업은 흑인에다 성소수자였던 그에게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의 이력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하다 30대가 돼서야 정식 예술 교육을 받았던 그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역사를 겪었고 그 역사를 내 작업 안에 가져가고 싶었다. 과거의 경험을 내 안에서 분리하거나 마치 다른 존재인 듯 이야기를 새로 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작품을 위해 길거리에서 수집한 인쇄물들에서는 신용불량자 대상 대출, 저가 보험, 이혼 및 친권 소송, 강제 퇴거 보호 조치 서비스 등 지역 사회의 구조와 도시 하층민들의 삶을 알 수 있는 언어들이 발견된다. 조각난 부분들이 겹쳐있고, 쌓여있고, 그을리고, 찢겨 있지만 관람객은 그 단서들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추상화'를 개척한 브래드포드의 예술적 전략인 것이다.

또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작가는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남부의 인종차별과 폭력을 피해 600만 명이 북부와 서부로 이주한 사건을 중심으로 철도 기차표 형식의 작품을 제작했다. 종이와 안료를 반복적으로 덧입히고 쌓아 올린 열차 시간표들의 숫자는 사그러지고 무너져 내리며 불안정한 상실의 흔적을 가진다. 소외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도시의 소외 계층삶을 대변하는 작가의 작품에는 조각나고 그을린 단서들이 종잇장처럼 쌓여 있다.

마크 브래드퍼드의 압도적인 설치작품이다. 회화와 조각, 영상과 함께 대규모 종이 추상 설치로 미술관의 원형 홀의 벽과 천장을 어지럽게 채운 것이다. 원형 홀은 마치 석고가 떨어지는 파멸의 현장처럼 느껴졌고 벽은 부식된 것처럼 보였으며 인간의 분노로 천장에서는 석고가 쏟아지는 듯 압도적 현장감이 연출되었다. 수없이 겹친 종이의 레이어 추상화를 조각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작품이다.

▲ 마크 브래드포드 'Pickett's Charge', 허쉬혼 미술관, 설치미술 (부분), Washington DC, 2017

종이를 쌓고 붙이고 덧입히는 행위와 찢고 파내고 불태우는 파괴 행위의 환상적 결합으로 생생한 질감을 완성하였다. '프레임이 없는 입체 그림'이라는 작가 자신의 표현처럼 이렇게 탄생한 화면은 공감각적 만족의 결정체이다.

### 2. 꼴라주&데꼴라주

그의 작업 기법은 콜라주와 데콜라주를 통한 표현주의적 추상이다. 마크 브래드포드의 콜라주는 종이와 페인트를 결합한 격자 모양의 추상 표현이 집적된 형태이다. 종이와 끈을 겹겹이 쌓아 찢거나 파쇄, 접착 또는 워싱, 샌딩 등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하여 화면을 조성한다. 데콜라쥬는 올이 풀리지 않는 펠트 소재 표면을 파내거나 뜯어내어 색채의 대비, 공간감과 투시성, 입체적인 형태를 극대화해 표현한다. 소재의 유연성과 다양한 실루엣을 구현하며 핸드 컷아웃 기법을 적용해 마감 처리한다.

미용실 펌지, 상업 전단, 낡은 종이 등의 '하찮은' 재료는 주변부적 존재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흑인 커뮤니티의 삶과 언어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전단지, 광고지, 폐지 등 도시의 흔적을 층층이 덧붙이고 벗겨내며, 브래드포드는 도시의 역사를 피부처럼 드러낸다. 작품에 적용된 정교한 스킬과 주제에 적합한 재료의 절묘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작업은 가히 재료의 정치학이라 할 만한 경지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재료를 층층이 덧대어 붙이거나(꼴라주), 긁고 찢으며 파내는(데꼴라주) 방식으로 구축한 그의 추상 화면은 미처 잊고 있던 도시의 기억과 역사를 소리 없이 꼼꼼하고 치밀하게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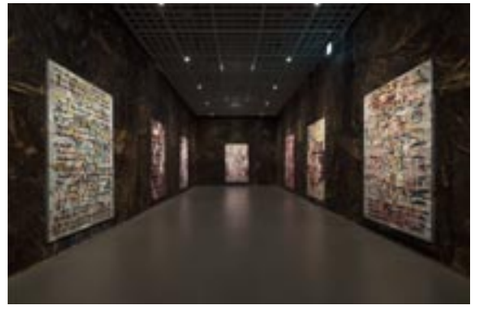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표면의 강렬함이다. 겹겹이 쌓이고 긁히고 찢겨나간 화면은 단지 추상적인 조형언어로 끝나지 않고, 도시의 피부처럼 시대와 장소의 흔적을 품고 있다. 브래드포드의 재료 선택은 단순한 조형적 실험이 아닌, 사회적·정치적 발화에 가깝다. 그래서 그가 추출해낸 숨은 이야기들은 아찔하다. 이 반복적인 물리적 행위는 억압된 역사, 주변부의 목소리를 조용히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결국 그가 구성한 화면은 기억의 지층처럼, 억압과 저항의 흔적을 압축해 담은 도시의 지도이자 인류학적 기록이 된다.

▲ 꼴라주와 데꼴라주 기법으로 깊고 다양해진 마크 브래드포드의 화면

## ● 주제와 지향

### 1. 도시의 역사와 기억을 탐구하다.

마크 브래드퍼드는 특정 그룹을 다른 그룹과 구분 짓는 커뮤니티 개념에 관심이 많은 작가다. 오랫동안 인구, 특히 소외된 공동체를 그룹화하고 수량화한 그는 많은 전시에서 '지도'를 모티브로 주제를 드러내었다. 광고에 쓰인 오래된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 도시의 대중교통망, 큰 길, 수도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이런 도시계획 시스템이 어떻게 지역 커뮤니티를 나누고 빈부 격차를 극대화하는지 파고들었다. "전통적으로 지도는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인쇄된 선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드러내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그는 도시 공간이 결국 권력에 기반한 시설에 따라 분배된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렇게 도시 속 이질적인 커뮤니티와 숨어 있는 사회적 불의를 강조하며, 나아가 도시 속 인간 존재를 추적했다.



▲ 마크 브래드포드 '폭풍이 몰려온다 Here Comes the Hurricane', 2025

'폭풍이 몰려온다' 연작은 2005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보며 통제 불가능한 재난과 미숙한 정부의 피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소외된 삶에 주목한 작품이다. 작가는 소외된 인간 군상을 미국 최초의 드래그 퀸으로 알려진 인물이자 사회적 탄압을 받았던 윌리엄 도어시 스완의 삶으로 대신 표현했다. 브래드퍼드는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구조적 폭력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간성을 잃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며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2005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미국 최초의 드래그 퀸인 윌리엄 도어시 스완의 삶을 병치시킨 이 작품들이 한국 전시를 위해 만든 신작이라는 것이다. 브래드퍼드는 "스완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핍박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서 "검은 벽지와 종이 표면을 산화시켜 만든 금빛 무늬는 폭풍의 결을 상징한다고 했다.

▲ 마크 브래드포드/뉴욕시(부분)/2019/캔버스에 혼합 매체 304.8 x 304.8 ㎝

▲ 마크 브래드포드/로스앤젤레스(부분)/2019/캔버스에 혼합 매체370.8 x 1575.4 ㎝

## 2. 정체성 확인의 여정

그동안 그는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과 권력 분배,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에이즈 같은 사회적 이슈를 작품에 담아냈다. 로스앤젤레스의 노동자계급으로 태어난 그는 흑인이자 게이로 살면서 미국 사회에 만연한 편견을 몸소 체감했다. 미용사로 일하는 홀어머니와 함께 편부모 가정이 모여 사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의 살롱에서 보냈어요. 책을 좋아했고, 그 동네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소년들보다 섬세했죠"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저는 방이나 거실로 항상 무언가를 가져와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되돌아보면 그 행위가 곧 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예술가였어요.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노동자계급은 예술가라는 말을 쓰지 않죠. 누구도 제가 아티스트라고 말해주지 않았고,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이런 배경은 그가 작품에 담는 서사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 마크 브래드포드, '나이아가라(2005)' 스틸 컷. 골반을 흔들며 거리를 걷는 흑인 남성(작가 자신)의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가는 영상 작품 '나이아가라'는 묘한 긴장감을 준다./제공=APMA

브래드포드의 작업이 '사회적 추상 social abstraction'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또는 정치적 맥락을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는 사회적 기억을 담은 추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의 흔적과 그림자 혹은 유령 같은 것들이 담긴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흑인이다. 게다가 성소수자다. 과거 미국 사회의 인종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교집합 가운데 서 있던 그는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강하게 배척받던 부류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는 작가는 인종 차별과 성소수자 탄압,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미국 역사의 핵심 갈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미국이 가진 모순을 가장 예술적으로 보여준 작가가 되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작품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다층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노란 바지를 입은 채 골반을 경쾌하게 흔들며 거리를 걷는 흑인 남성의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가는 영상 작품 '나이아가라'는 묘한 긴장감을 준다. 작품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이런 공개적인 젠더 표현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배우 마릴린 먼로가 섹시한 워킹으로 스타가 된 1953년 동명의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내러티브이다.

### ● 마크 브래드포드의 괄목할 두 전시

### 1. Venice Biennale - Tomorrow is Another Day (2017)

▲ Tomorrow is Another Day는 마크 브래드포드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미국관 대표로 선보인 멀티미디어 전시로, 추상 조형을 통해 미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개인적 정체성의 복잡한 층위를 직조한 기념비적인 작업이다.

'Tomorrow is Another Day'는 미국 국무부, 볼티모어 미술관, 로즈 미술관 공동 주최로 구성되었으며, 베니스 전시 종료 이후 볼티모어 미술관으로 순회되었다. 브래드포드는 이 전시를 통해 추상의 형식이 감정과 사회적 현실을 가시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추상 회화의 전통을 오늘날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정의하였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회색 경제'와 '도시적 생존 전략'을 예술로 승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브래드포드의 작업이 왜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목소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 2. Mark Bradford: Keep Walking (2025)
### '차별·불평등' 미국의 모순, 사회적 추상으로 꼬집다

'Mark Bradford: Keep Walking'은 함부르크 반호프 - 게겐바르트 국립미술관의 리크할렌(Rieckhallen) 개관을 기념하여 기획된 마크 브래드포드의 첫 독일 개인전으로, 20년에 걸쳐 제작된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20점의 대형 작업을 통해 예술가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조형 실험을 조명한다. 전시 제목 Keep Walking은 단지 신체적 움직임을 넘어, 역사적 억압과 지워진 기억을 가로지르는 정서적, 정치적 행위를 함축한다. 브래드포드의 작업에서 '걷기'는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리듬과 경로를 찾아나가는 주체적 몸짓이자 저항의 제스처다. 그는 사회적 현실을 추상 회화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재현과 형식, 참여와 시각성의 경계를 유연하게 교란시키고 확장시킨다.

'Mark Bradford: Keep Walking'은 마크 브래드포드의 예술 세계가 지닌 다층성과 정치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공간, 역사, 감각을 통해 사회적 개입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시다. 베를린을 시작으로 서울(APMA), 베른(Kunstmuseum)으로 이어지는 이 순회 전시는, 동시대 미술지평에서 브래드포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 마크 브래드포드의 '떠오르다'(2019). 2025년 현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순회 전시 중인 'Mark Bradford: Keep Walking'에서 볼 수 있다.

'떠오르다(Float), 2019'는 관람객이 직접 작품 위를 걸으며 공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성한 대형 설치 작업이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수집한 전단지와 신문지를 재단해 노끈으로 연결해 만든 작품을 바닥에 설치하고 회화와 행위, 도시의 흔적을 엮어 하나의 장면으로 펼쳤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의 표면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그 흔적이 모두 작품이다.

작품 위를 걷는 전시는 '사회적 추상'의 담론을 형상화하고 있다. 액자나 벽을 통해 고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작품은 틀에서 해방되어 관람객과 신체적 접점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 안에 들어가 걷게 하고 싶었다. 그것은 회화에 대한 질문이자, 동시에 정치적 행위"라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몸 안에 갇힌 존재다. 하지만 그 몸을 통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계속 걷는 것, 그것이 저의 메타포이다"라고 설명했다.

거대한 전시장 한가운데 서로 다른 크기의 지구 여러 개가 서로 다른 높낮이로 매달렸다. 사람들이 같은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지도 모른다는 불평등의 감각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검은 바다와 불타버린 대륙을 표현한 이 작품은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긴 제목을 달고 있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유명한 대사를 빌려서 붙인 제목이다. 제작 연도를 보면 또 다른 맥락이 상상될 수밖에 없다. 올해 2기 정권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 말인 2019년 제작된 작품은 당시 미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교차하며 단순한 조형적 실험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를 유추하게 한다.

▲ 'Mark Bradford: Keep Walking' 서울 순회 전 가운데 가장 깊숙한 안쪽 전시장 내벽에 붙은 설치 회화 '명백한 운명'(2023).
'즉시 현금을 준다'는 구호를 내세워 빈민들로부터 집을 헐값에 사들이는 투기자본 업체의 실상을 짚은 작품으로 너덜거리는 벽면을 연상시키는 캔버스 세 폭으로 '조니가 집을 삽니다'(JOHNNY BUYS HOUSES)라는 전단지 문구를 연결해 보여준다.

▶ 여러 개의 지구 모양 구체를 매단 설치 작품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 종이로 만든 구체들에는 불타고 그을린 대륙과 바다가 나타나는데 각기 크기와 질감이 달라 파편화하고 불균형이 심화한 오늘날 지구 세계의 모습을 암시한다. 인류가 같은 행성에 살지만, 결코 동일한 세계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진실을 드러낸 작품으로 서울에서 진행 중인 순회 전시 'Mark Bradford: Keep Walking'에서 볼 수 있다.

"Manifest Destiny(명백한 운명)(2023)"에서는 그의 작업이 어떻게 도시의 구조와 권력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업용 벽보 "JOHNNY BUYS HOUSES(조니가 집을 삽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전단지에서 작품은 출발했다. 원래는 '즉시 현금 지급' 등의 문구로 도시의 취약한 계층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기 자본의 수단이지만, 작가는 이를 회화의 언어로 옮겨 놓는다. 여기서 회화는 광고지를 재현하는 이미지가 아닌 도시의 계층 구조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작동하는 논리를 절제된 구성 안에 압축해 나타내며 살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웃지못할 현실을 대변한다. 작품의 제목도 19세기 미국의 팽창주의 이데올로기. 즉,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그대로 차용해 국가가 서부 개척을 운명으로 삼으며 토착민의 삶을 지우고 확장해간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 ● 마크 브래드포드의 특별한 작품들

### 1. 탈주의 제스처 'Death Drop' (2023)

▶미국 뉴욕 할렘에서 성소수자 남성들이 탄생시킨 댄스 보깅의 대표적인 포즈를 따온 설치 조각 '데스 드롭Death Drop'. 이 몸짓은 단순한 공연적 제스처를 넘어서, 억압과 박해, 탈주와 노출이라는 다층적 의미망을 구성한다. 사진=AMPA

'Death Drop은 마크 브래드포드가 자신의 신체를 실물보다 크게 재현한 조각 작품으로, 게이 볼룸 문화에서 유래한 상징적 동작인 '데스 드롭(death drop)' 자세를 취한 인물을 묘사했다. 이 작품은 2023년 하우저 & 워스 뉴욕에서 열린 전시 'You Don't Have to Tell Me Twice' 작업 중 하나로, 브래드포드가 자전적 기억과 공동체적 상처를 사회적 추상(social abstraction)이라는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극명하게 드러낸 핵심 작품이다.

인물 조각은 퍼포먼스의 클라이맥스를 극적으로 포착한 동작으로 팔과 다리를 넓게 벌린 채 바닥에 쓰러진 자세다. 이 몸짓은 단순한 공연적 제스처를 넘어서, 억압과 박해, 탈주와 노출이라는 다층적 의미망을 구성한 것이라 한다. 브래드포드는 이 자세를 두고 "퍼포먼스적 조각이자, 동시에 박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하며, 인물이 클럽이라는 보호 공간 밖, 차가운 현실 공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조각이 입은 패딩 재킷(puffer jacket)은 야외 노출과 생존을 상기시키며, 보호선 밖의 퀴어 정체성 및 사회적 취약성의 교차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eath Drop'은 단지 하나의 포즈가 아니라, 퀴어한 몸이 사회에서 견뎌야 했던 물리적·정신적 드라마가 응축된 퍼포먼스이자 상징적 조상이다.

### 2. Helter Skelter I (2007)
### - 2018 Sotheby's 경매, 135억 원 낙찰

'Helter Skelter I'(2007)은 마크 브래드포드가 로스앤젤레스 남부 거리의 현실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한 사회적 구조를 시각화한 대표적인 추상 회화이다. 너비 10미터 이상인 이 초대형 작품은 거리에서 수집된 포스터, 간판 조각, 광고지 등 다양한 종이 인쇄물들을 반복적으로 겹치고 찢고 긁어내는 고단한 물리적 여정을 통해 탄생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의 시간과 이미지의 파편을 물성으로 표현하여, 행간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추상으로 시각화한 독창적인 언어이다. 작품의 제목은 1960년대 말, 찰스 맨슨이 조장한 인종 전쟁의 종말론적 내러티브에서 가져왔으며, 마크 브래드포드의 고향 로스앤젤레스의 무질서, 인종 갈등과 같은 어두운 과거를 담고 있다.

▶'Helter Skelter I'(2007)은 10mrk 넘는 초대형 작품으로 로스앤젤레스 남부 거리의 현실과 역사, 그 안에 내재한 사회적 구조를 시각화한 마크 브래드포드의 대표적인 추상 회화다.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나 도시의 스펙터클한 역사적 무의식이 추상적 감각으로 드러난 그의 대표작이다.

작품 전면에 등장하는 복잡한 선들이 반짝이는 은빛 표면을 가로지르며, 그 틈 사이로 해골, 성조기, 'CANDY', 'KING' 등 불명확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파편이 부유한다. 이것이 마크 브래드포드가 '사회적 추상화'라 부른 개념을 실현한 방식이다. 이 추상적 회화에는 인종과 젠더 문제, 영역별 계급의식, 도시의 정치상황 등 사회적 맥락을 개입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마크 브래드포드 작업의 가장 큰 전환점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2007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제작되었는데 2018년 소더비 경매에서 약 135억 원에 낙찰되어 당시 그의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이 작품을 통해 동시대 추상회화가 도시의 구조적 폭력과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은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Helter Skelter I'는 그가 미술의 역사에서 '사회적 추상'이라는 독자적 지평을 개척했음을 인정받은 기념비적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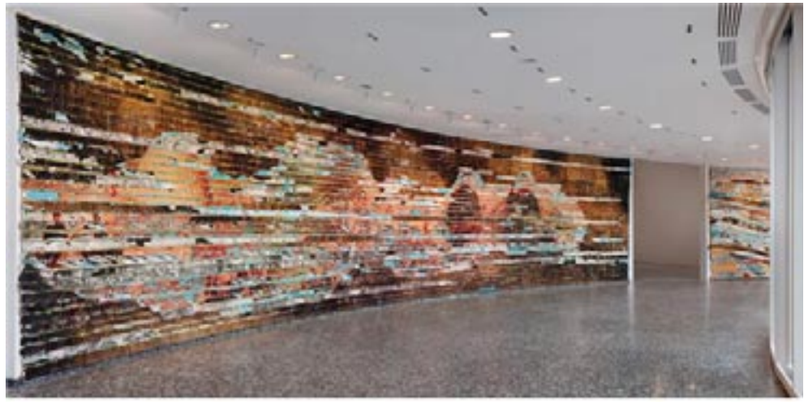
## 3. '엔드 페이퍼'작품 '파랑 Blue' (2005)

작가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엔드 페이퍼(End papers)를 활용한 연작 중 하나이다. 초창기 대표작이기도 한 '파랑'(Blue, 2005)은 그가 유년 시절 미용실에서 흔히 접한 엔드 페이퍼가 주재료이다. 퍼머넌트에 사용되는 종이의 가장자리를 태워 검게 그을린 테두리 윤곽선이 나타나게 하고 화폭 위에 줄지어 붙였다. 엔드 페이퍼를 줄줄이 부착한 추상적 화면 위에 파란색 스텐실로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 로스엔젤리스 시내 지도 형태를 표현하고 신문지 조각들도 덧붙여 도시 구조와 역사에 대한 서사를 담은 작품으로 만들었다. 미용실 펌지, 상업 전단, 낡은 종이 등 '하찮은' 재료는 주변부적 존재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흑인 커뮤니티의 삶과 언어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엔드 페이퍼는 작가가 유년기를 보낸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흔히 접했던 재료다. 초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작품 재료로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가의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가 얽힌 핵심 재료로 자리잡게 되었다. 도시의 구조, 인종적 위계 그리고 이동과 불균형이 시각적 흔적으로 축적되는 이 회화들은 추상의 언어 안에서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새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크 브래드포드의 초창기 대표작 중 하나인 '파랑'(Blue, 2005)의 일부분이다.. 유년 시절 미용실에서 흔히 봤던 펌용 반투명 격자 종이 '엔드 페이퍼'의 가장 자리를 태워 검게 그을린 테두리 윤곽선이 나타나게 하여 화폭에 이어 붙인 '엔드 페이퍼' 연작 중 하나



## 4. 장대한 회화 연작 '피켓의 돌격'



▶ 2017-18년 허쉬혼 박물관과 조각 정원 에서 열린 " 마크 브래드포드 : 피켓의 돌격" 설치 광경 .

▶ 2017년 허쉬혼 뮤지엄 조각 정원에서 ' 피켓의 돌격 ' 작업을 하는 마크 브래드포드./하우저 앤 위스 제공

'피켓의 돌격'은 마크 브래드포드가 2017년에 완성한 여덟 점의 거대한 혼합 매체 작품이다.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적인 네트워크, 군복을 입은 북군 병사들, 대포, 나무, 죽은 말들의 이미지, 벗겨진 종이, 뭉쳐진 통로가 입체적으로 광란의 몸짓을 보이는 중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허쉬혼 뮤지엄 3층 내부 원형 갤러리의 모든 벽면은 거대하고 장소 특정적이며 역사적 배경을 지닌 추상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대규모 전시는 총 400피트(약 121m)에 달하며, 각 전시의 길이는 약 45~50피트(약 14~15m), 높이는 12피트(약 3.8m)이다.

마크 브래드포드의 이 장대한 패널 작품들은 715년 전 게티즈버그에서 벌어진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배경이다.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었던 피켓의 돌격은 1863년 7월 3일에 일어났으며, 그날 남부 연합군을 지휘했던 패배한 장군 중 한 명인 조지 피켓 소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브래드포드는 이 특이한 그림의 대형 프린트 아웃 위에 8개의 작품 시리즈를 제작했다.

### ◈ '마크 브래드포드의 '사회적 추상화' / 작품 감상 포인트

1. 추상의 사회적 전환
로스코나 폴록과 같은 추상 표현주의의 형식을 차용하지만, 브래드포드는 그 추상을 사회적·인종적·역사적 맥락으로 전환한다. 형식의 미학이 아니라 구조 속 권력을 비판한다.

2. 재료의 정치학
미용실 펌지, 상업 전단, 낡은 종이 등 '하찮은' 재료는 주변부적 존재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흑인 커뮤니티의 삶과 언어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3. 도시의 피부를 보여주다
전단지, 광고지, 폐지 등 도시의 흔적을 층층이 덧붙이고 벗겨내며, 브래드포드는 도시의 역사를 피부처럼 드러낸다.

# 공연가이드

## 09 2025

| | | | | | |
|---|---|---|---|---|---|
| 9.02 (화) | 19:30 | [대관공연] | 제14회 한국 가곡의 밤 | 소공연장 | 울산음악협회 |
| 9.03 (수) | 19:30 | [대관공연]] | 설명희의 classic on "유럽의 선율과 조화" | 소공연장 | 설명희 |
| 9.04 (목) | 19:30 | [대관공연] | 장원우 클라리넷 독주회 | 소공연장 | 장원우 |
| 9.05 (금) | 19:30 | [대관공연] | 울산광역시 승격 28주년 기념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대공연장 | 문화예술기획 봄 |
| 9.06 (토) | 16:00 | | | | |
| 9.07 (일) | 17:00 | [대관공연] | 제10회 루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대공연장 | 루체청소년오케스트라 |
| 9.06 (토) | 11:00 | [문화컨텐츠] | 인형극「어린왕자와 비밀의 돌」 | 소공연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
| 9.07 (일) | 14:00<br>16:00 | | | | |
| 9.10 (수) | 19:30 | [상설기획] | 뒤란 9. 10. | 야외공연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ubc울산방송 |
| 9.12 (금) | 19:30 | [교향악단] | 「자연의 교향곡 - Nature's Symphony」 | 대공연장 | 울산시립예술단 |
| 9.13 (토) | 17:00 | [대관공연] | 지브리& 디즈니 영화음악 FESTA | 대공연장 | 필뮤직컴퍼니 |
| 9.14 (일) | 13:00<br>15:00<br>17:00 | [대관공연] | 2025 라이브 가족뮤지컬 <라푼젤> | 소공연장 | 안녕컴퍼니 |
| 9.14 (일) | 13:30 | [대관공연] | 행복콘서트 및 제2회 한가위 꽃청춘 가요제 예선 | 야외공연장 | 심청이예술단 |
| 9.16 (화) | 19:30 | [대관공연] | 이인경 피아노 독주회 | 소공연장 | 이인경 |
| 9.17 (수) | 19:30 | [상설기획] | 뒤란 9. 17. | 야외공연장 | 울산문화예술회관, ubc울산방송 |
| 9.18 (목) | 19:30 | [합 창 단] | 「합창종합선물세트」 | 대공연장 | 울산시립예술단 |
| 9.18 (목) | 15:00 | [대관공연] |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 개막식 | 소공연장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 9.19 (금) | 09:00 | [대관공연] | 제3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제35회 합창페스티벌 | 대공연장 | 울산음악협회 |
| 9.20 (토) | | | | | |
| 9.19 (금) | 10:00 | [대관공연] |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 건축인 워크숍 | 소공연장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 9.20 (토) | 17:00 | [청소년 교향악단] | 「영화 속 클래식」 | 소공연장 | 울산시립예술단 |
| 9.21 (일) | 19:00 | [대관공연] | 울산YMCA합창단 2025 정기연주회 | 대공연장 | 울산YMCA합창단 |
| 9.26 (금) | 19:30 | [교향악단] | 「햄릿」 | 대공연장 | 울산시립예술단 |
| 9.27 (토) | 19:00 | [대관공연] | 제4회 CTS울산방송합창단 정기연주회 | 대공연장 | CTS울산방송합창단 |
| 9.27 (토) | 14:00<br>18:00 | [초청기획] | 뮤지컬 <등등곡> | 소공연장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예술회관, 나인스토리 |
| 9.27 (토) | 11:00 | [대관공연] | 2025 제5회 춤의 인연생기 | 야외공연장 | 대한무용협회울산광역시지회 |
| 9.28 (일) | 17:30 | [대관공연] | 제29회 울산불교합창축제 | 대공연장 | (사)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
| 9.28 (일) | 14:00 | [대관공연] |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 야외공연장 | 코리아트예술단 |
| 9.30 (화) | 19:30 | [대관공연] | 2025 장애인사랑예술제 | 소공연장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울산시협회 |



# 전시가이드

## 09 2025

| | | | |
|---|---|---|---|
| 9.3.~9.15.<br>삼두미술상 운영위원회 | 13일간 | 제 1전시장 | 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 |
| 9.3.~9.8.<br>울산여류작가회 | 6일간 | 제2전시장 | 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 |
| 9.3.~9.8.<br>보태니컬아트 울산 | 6일간 | 제3전시장 | 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 |
| 9.3.~9.8.<br>황치길 | 6일간 | 제4전시장 | 황치길 사진전 |
| 9.10.~9.15.<br>섬과 물결 | 6일간 | 제 2 전시장 | 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 |
| 9.10.~9.15.<br>아르떼 | 6일간 | 제 3 전시장 | 제2회 아르떼 회원전 |
| 9.10.~9.15.<br>김숙례 | 6일간 | 제 4 전시장 | 규빈 김숙례 개인전 |
| 9.17.~9.22.<br>건축정책과 | 6일간 | 제 1,2,3,4전시장 | 울산 건축 문화제 |
| 9.24.~9.29.<br>울포경 사진클럽 | 6일간 | 제 1전시장 | 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 |
| 9.24.~9.29.<br>울산미협 | 6일간 | 제 2전시장 | 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 |
| 9.24.~9.29.<br>울산예술문화명인진흥회 | 6일간 | 제 3전시장 | 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 |
| 9.24.~9.29.<br>울산공예디자인협회 | 6일간 | 제 4전시장 | 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 공연일정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25
09
September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 2<br>● 제14회 한국 가곡의 밤 19:30 | 3<br>● 설명희의 classic on "유럽의 선율과 조화" 19:30 | 4<br>● 장원우 클라리넷 독주회 19:30 | 5<br>● 울산광역시 승격 28주년 기념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 6<br>● 울산광역시 승격 28주년 기념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6:00<br>● 인형극 「어린왕자와 비밀의 돌」 11:00 / 14:00 / 16:00 |
| 7<br>● 제10회 루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br>● 인형극 「어린왕자와 비밀의 돌」 11:00 / 14:00 / 16:00 | 8 | 9 | 10<br>● 뒤란 19:30 | 11 | 12<br>● 「자연의 교향곡 - Nature's Symphony」 19:30 | 13<br>● 지브리& 디즈니 영화음악 FESTA 17:00 |
| 14<br>● 2025 라이브 가족뮤지컬 <라푼젤> 13:00 / 15:00 / 17:00<br>● 행복콘서트 및 제2회 한가위 꽃청춘 가요제 예선 13:30 | 15 | 16<br>● 이인경 피아노 독주회 19:30 | 17<br>● 뒤란 19:30 | 18<br>● 「합창종합선물세트」 19:30<br>●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 개막식 15:00 | 19<br>● 제3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제35회 합창페스티벌 09:00<br>●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 건축인 워크숍 10:00 | 20<br>● 제3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제35회 합창페스티벌 09:00<br>● 「영화 속 클래식」 17:00 |
| 21<br>● 울산YMCA합창단 2025 정기연주회 19:00 | 22 | 23 | 24 | 25 | 26<br>● 「햄릿」 19:30 | 27<br>● 제4회 CTS울산방송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br>● 뮤지컬 <등등곡> 14:00 / 18:00<br>● 2025 제5회 춤의 인연생기 11:00 |
| 28<br>● 제29회 울산불교합창축제 17:30<br>●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14:00 | 29 | 30<br>● 2025 장애인사랑예술제 19:30 | | | | |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시일정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25
09
September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3전시장
- 제4전시장
- 상설전시장
- 야외공연장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 2 | 3<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br>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br>황치길 사진전 | 4<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br>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br>황치길 사진전 | 5<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br>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br>황치길 사진전 | 6<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br>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br>황치길 사진전 |
| 7<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br>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br>황치길 사진전 | 8<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47회 울산여류작가회 정기전<br>보태니컬 아트 울산 회원전<br>황치길 사진전 | 9<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 | 10<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br>제2회 아르떼 회원전<br>규빈 김숙례 개인전 | 11<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br>제2회 아르떼 회원전<br>규빈 김숙례 개인전 | 12<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br>제2회 아르떼 회원전<br>규빈 김숙례 개인전 | 13<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br>제2회 아르떼 회원전<br>규빈 김숙례 개인전 |
| 14<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br>제2회 아르떼 회원전<br>규빈 김숙례 개인전 | 15<br>제3회 삼두미술상 수상전<br>제8회 섬과 물결 사진전<br>제2회 아르떼 회원전<br>규빈 김숙례 개인전 | 16 | 17<br>울산 건축 문화제 | 18<br>울산 건축 문화제 | 19<br>울산 건축 문화제 | 20<br>울산 건축 문화제 |
| 21<br>제29회 울산미술대전 | 22<br>제29회 울산미술대전 | 23 | 24<br>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br>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br>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br>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25<br>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br>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br>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br>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26<br>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br>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br>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br>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27<br>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br>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br>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br>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 28<br>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br>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br>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br>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29<br>제4회 울포경 사진클럽 회원전<br>제2회 아름다운 한글전<br>제4회 울산예술문화 명인진흥회전<br>제16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 | 30 | | | | |

※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울산지역 **공연&전시 정보**

## 중구문화의전당

공연

**국악앙상블 울토리 <굴아화현>**
9. 5.(금) 19:30
전석 1만원
(8세 이상 관람가)

공연

**소프라노 김순영 리사이틀**
9. 11.(목) 19:30
전석 20,000원
(8세 이상 관람가)

공연

**2025 렉처콘서트 조우 <베네치아>**
9. 16.(화) 19:30
전석 10,000원
(8세 이상 관람가)

공연

**아트 온 스크린 9월 <바로크 음악의 세계>**
2025. 9. 23.(화) 19:30
전석 무료
(8세 이상 관람가)

공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노자와 베토벤>**
9. 26.(금) 19:30
전석 10,000원
(8세 이상 관람가)

##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

**임산부, 다둥이를 위한 특별음악회**
9. 7.(토) 17:00
전석 무료(전체관람가)

공연

**세대 맞춤형 유모차 콘서트**
9. 20.(토) 17:00
전석 무료
(전체관람가)

공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개[開]판 콘서트**
9. 27.(토) 17:00
전석 무료
(전체관람가)

전시

**야외 상설 조각전**
8. 25.(월) ~ 12. 25.(목)
무료

## 울주문화예술회관

상영

**(토요어린이시네마) 아머드 사우르스**
9. 13.(토) 11:00/15:00
전석 무료

공연

**가을에 만나는 감미로운 첼로의 향연 <올 댓 첼로>**
2025. 9. 24.(수) 20:00
전석 1만원

공연

**MZ댄스 페스티벌 써미트버스킹**
9. 13.(토) 19:00
무료관람

행사

**실감나는 백스테이지 투어**
9. 20. (토) 14:00
무료

강좌

**하반기 인문 예술 아카데미**
2025. 9. 매주 화, 수, 목
강좌별 5만원

공연

**필하모닉 스트링 퀸텟 베를린**
9. 19.(금) 19:30
전석 3만원

## HD아트센터

공연

**스미노 하야토 피아노 리사이틀**
09.04(목) 20시
R석 90,000원, A석 70,000원, B석 45,000원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09.26(금)~28(일)
VIP석 160,000원, R석 140,000원, A석 110,000원, B석 80,000원
(초등학생이상 입장가능)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기념
가족과 함께 즐기는 막대 인형극

어린왕자와
비밀의 돌

원작 <반구천 암각화 이야기>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25. 9. 6. 토
— 9. 7. 일

11시 14시 16시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 NATURE'S SYMPHONY

울산시립교향악단 **제246회 정기연주회**

# 자연의 교향곡

**비발디** | 사계
**A.Vivaldi** | The Four Seaons

**베토벤** | 교향곡 제6번「전원」
**L.v.Beethoven** | Symphony No.6 in F Major, Op.68「Pastoral」

## 2025. 9. 12.(금) 오후 7:30
##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사샤 괴첼**
*Conductor* Sascha Goetzel

바이올린 **조진주**
*Violin* Cho, Jin Ju

티켓가격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회원 30% | 단체(10인 이상) 20% |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 50% 할인

**울산시립예술단** | ulsan_arts_companies **울산시립교향악단** | upo_blue **사샤괴첼** | saschagoetzel **'울산시립예술단'**

공연문의_ http://ucac.ulsan.go.kr T. 052)275-9623

주최_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Ulsan Metropolitan Arts Community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연 상세보기**